

# 올림픽플라자 내달 본공사 착수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플라자가 다음 달 본공사에 돌입한다.

올림픽플라자는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고원훈련장 일원 24만6,002㎡ 부지에 총 3만5,000석 규모로 건설된다. 개·폐회식장을 비롯해, 성화대, 메달플라자, 올림픽홍보관, 문화행사장, 스폰서 홍보관, 각종 올림픽 위원회 하우스가 들어선다.

관람석 3만5,000석 중 2만5,000석은 임시시설물로 설치되며 올림픽 이후 철거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558억원,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327억원, 도 341억원 등 총 1,226억원이 투입된다. 올림픽플라자는 지난해 9월 사각형 형태로 기본설

계를 완료했으며 3만5천석 규모 오각형 형상으로 내년 9월 완공 사후 활용 대책 마련 TF 가동

계를 완료했으나 개·폐회식 행사 진행과 올림픽 유산 차원에서 오각형으로 형상을 변경했다. 지난 4월 기본설계를 완료한데 이어 이달 말이면 실시설계가 확정된다.

하지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2015년 11월30일 토목공사 우선시공분을 착공하는 등 공기를 맞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도는 다음 달 본공사 착공에 들어가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

다. 개·폐회식 공연 예행연습 등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난 8일 올림픽플라자 사후 활용 추진 TF팀을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마련에도 착수했다. TF팀은 동계올림픽본부를 총괄기획반으로 문화예술반, 레저 스포츠반, 관광산업반, 정보산업반, 배뉴 도시반 등 총 6개 반에 공무원 17명, 분야별 전문가 22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올림픽플라자의 경우 도심가에 위치해 사후 활용계획에 따라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전담팀 구성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협조해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사후 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

## 오늘 도 건축인 화합 한마당

대한건축사협회 도건축사회(회장:최성두)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삼척종합운동장에서 ‘2016 강원도건축사대회’를 개최한다. 도 건축사대회에는 지역 건축사와 개최지 건축직 공무원이 참여해 축구, 계주 등 체육활동과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하위윤기자